

유다서 묵상 1
(10/17/2020, 토)

찬양: 543(342)(어려운 일 당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유다서 1:1-2

말씀에 대한 이해

유다서에 대한 이해: 유다서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로 봅니다. 본문에는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의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65-8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인 유다가 살아있던 시기, 초기 영지주의가 퍼져나간 시기, 그리고 수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 언급되었다는 점(유 1:17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들을 고려할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이단의 미혹에 직면해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다서는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불릴 만큼 당시 교회를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악행들을 일일이 드러내며 그들의 잘못을 거침없는 어조로 논박합니다. 학자들은 유다서에서 사용하는 어휘, 핵심 주제,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이 베드로후서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유 1:4-18과 벵후 2:1-18, 3:2-3이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벵후 3:2-3 -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유 1:17-18 -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따라서 두 서신서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 있는데, 베드로후서의 일부분에서 이단자들이 출현할 것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유다서가 베드로후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른 믿음을 지킬 것, 이단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선포,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가르침들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1 절). 1 절 -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인사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는 하였으나 예수님의 형제로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이지만, 그것을 드러냄으로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과 추앙을 받는 것을 일부러 경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표현 대신에, 그 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이며 종으로서, 그 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임

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유다의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1 절).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1 절)**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함부로 행하면 안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엡 4:1 -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얻은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 5:1 -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쁜 산에로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그리스도인’**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롬 1:7 -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키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 분께서 철저히 지키십니다. 이 때의 지키미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당시 영지주의의 위협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조하면서 성도 자신들도 순결한 믿음,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함을 암묵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홀과 평강과 사랑이”(2 절). **2 절 - 공홀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는 공홀과 평강과 사랑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단의 위협, 그리고 핍박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공홀히 여기심, 평강,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서의 인사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주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홀과 평강과 사랑의 은혜를 물뱃듯이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부름받고, 사랑받고, 지키심을 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히 서 나가게 하옵소서.
2.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는 평안, 그리고 다함이 없는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영적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35 곳의 선교지들과 기관들 위에 성령 충만과 주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맺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